

사업 전환형 M&A 시리즈 ②

2026년 M&A 시장 전망과 성장 전략

기업 리더가 알아야 할 사업 전환형 M&A 트렌드

2026년 4월
Deloitte Insights



성장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Growth Transformer) 이 될 때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남 상 욱 파트너
전략재무자문 리더
One M&A 리더

 sangnam@deloitte.com

2026년 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전환형 M&A’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인프라, 에너지, 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단순 외형 확장만을 위한 M&A대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인수와 비핵심·저성장 사업 정리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기업이 글로벌 및 국내 M&A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주요 산업별 전략적 선택 방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반기 M&A 시장에서는 AI 중심의 공세적 성장형 거래와 레거시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형 거래가 동시에 전개되며 시장 분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2026년 이후 기업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결국, 사업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만이 다음 성장 사이클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가 귀사의 전략적 판단과 성장 전환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의 필요성
- 사업 전환의 핵심, CEO의 비전과 선제적 M&A

II. 글로벌 M&A 시장 전망

III. 국내 M&A 시장 전망

IV.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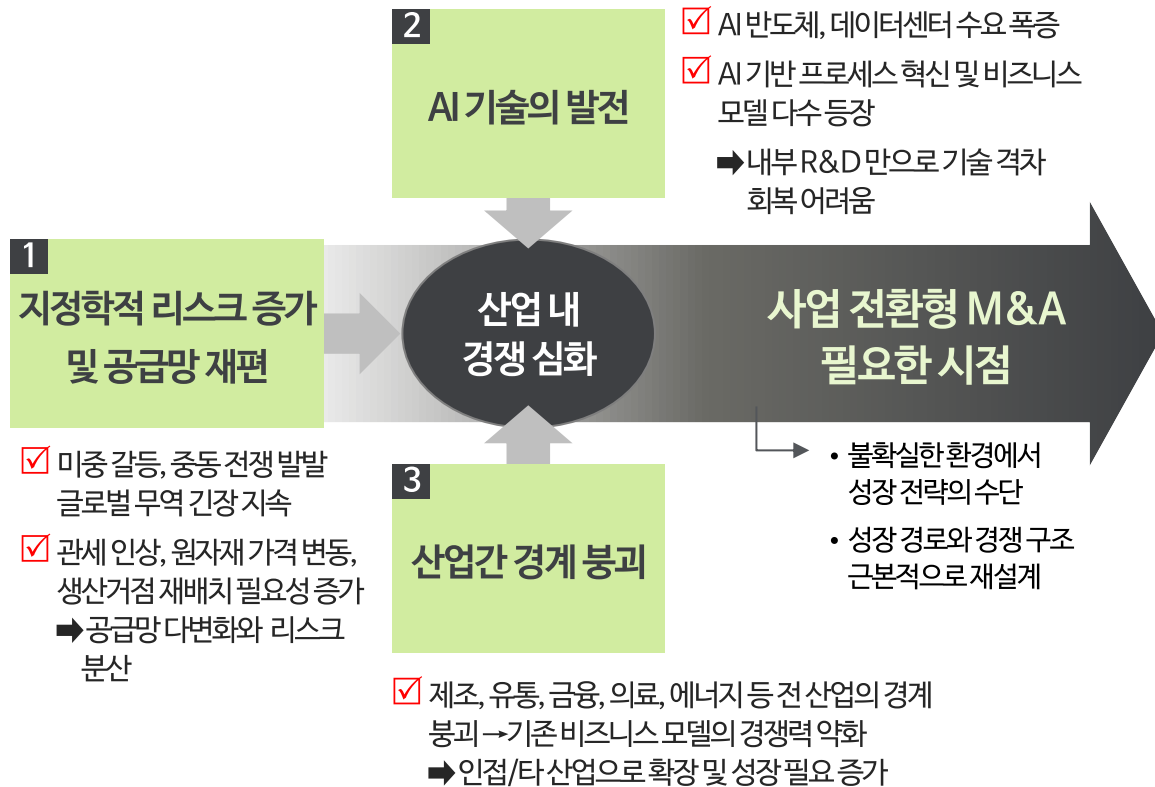
V.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사업 전환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 필요성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은 '사업 전환'을 요구 받고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업 전환형 M&A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경영환경: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 성장전략 필요

리더십의 주도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입, 핵심 역량 확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 성장 경로와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



사업 전환형 M&A의 핵심과 혜택

사업 전환형 M&A는 단순 외형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의미

운영 회복력 확보 (Resilience)

- 단기간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
- 공급망 다변화, 생산거점 재배치를 통해 외부 충격(지정학, 원자재, 규제)에 대한 회복력 강화.
- 단일 사업·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춰 수익 구조의 안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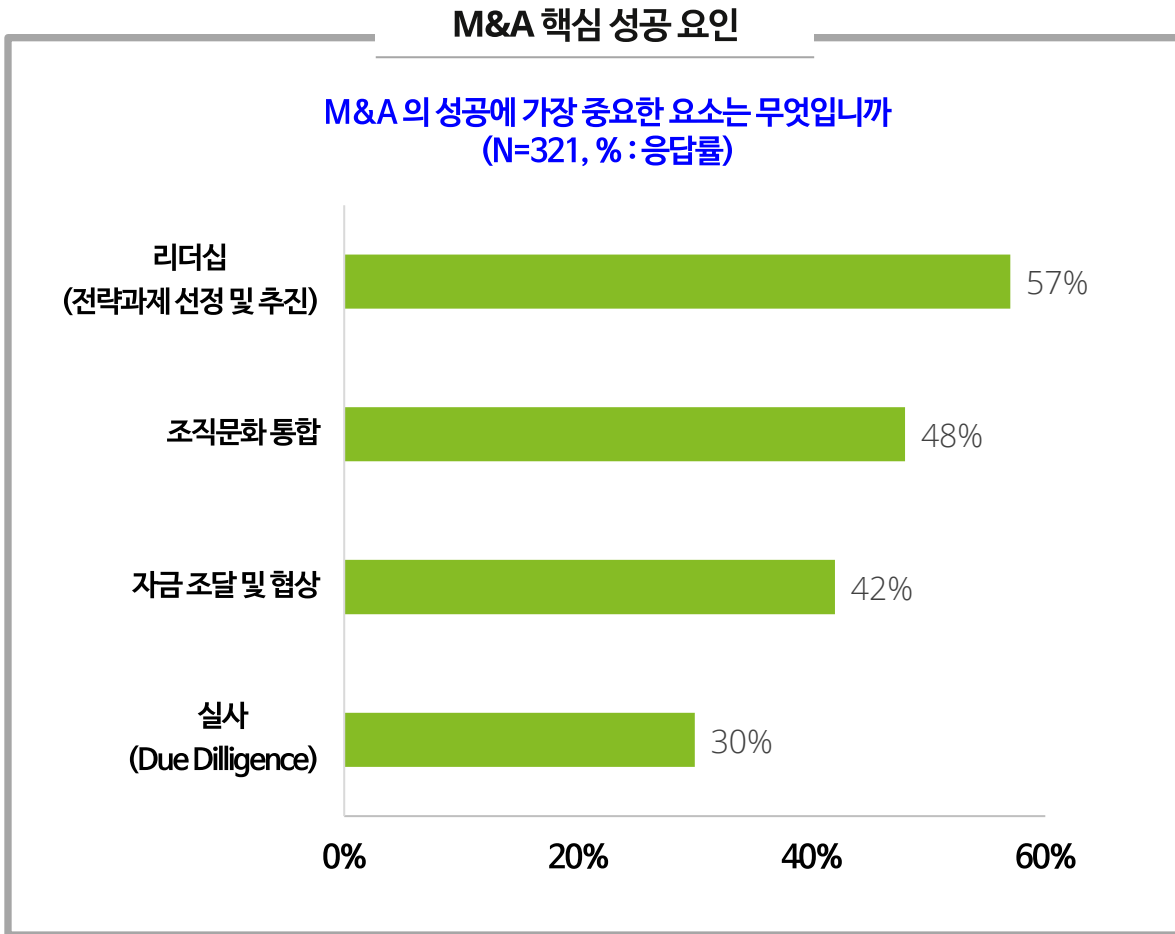
- 내부 R&D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AI,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인재를 신속히 확보.
- 전통적 산업 경계를 넘어 이종 산업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저성장·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고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 재편

장기적 기업 미래 가치 창출

-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사업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재정립.
-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확보하여, 경쟁사 대비 지속적 경쟁 우위 유지
- 주주들이 기대하는 장기적 성장과 수익성을 실현하는 플랫폼 마련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사업 전환의 핵심, CEO의 비전과 선제적 M&A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 전환의 성공은 CEO의 명확한 비전, 대담한 의사결정, 조직 동원 능력에 달려 있으며, 사업 전환형 M&A는 그 핵심 수단입니다. CEO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M&A만이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EO의 과제	사업 전환형 M&A 성공의 핵심
명확한 비전 제시와 전략적 방향성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명확히 수립 AI 전환, 신사업 진입, 레거시 정리 등 장기적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연결 비전을 조직 전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임직원, 이사회, 투자자의 공감대 형성
대담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자본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R&D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 M&A를 과감히 추진. 저성장·비핵심 자산은 적기에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을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 단기 실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본 배분 원칙 견지
변화 실행을 위한 조직 동원과 문화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를 단순 거래로 끝내지 않고, 인수 후 통합(PMI)까지 직접 챙기는 실행 체계 구축 인수 기업과 자사 간 조직 문화 차이를 사전에 진단하고, 통합 로드맵을 수립 중간관리층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속적 학습과 적응을 장려

Note 1)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거래 (총 321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거래 발표 시점 매수자의 연간 매출은 최소 1억 달러 이상, 평균 연간 매출은 110억 달러, 거래 규모는 최소 1,000만 달러 이상, 평균 거래 규모는 24억 달러

I.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II. 글로벌 M&A 시장 전망

- 2025년 M&A 시장 점검 : 2025년 '메가딜 중심'으로 전환
- 2026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거래' 기록, 그러나 '양극화'에 주목
- AI가 재편한 M&A 시장, 확장과 매각 동시 요구
- 2026년 하반기, 공세적 인수와 전략적 매각 간 실행 타이밍이 중요

III. 국내 M&A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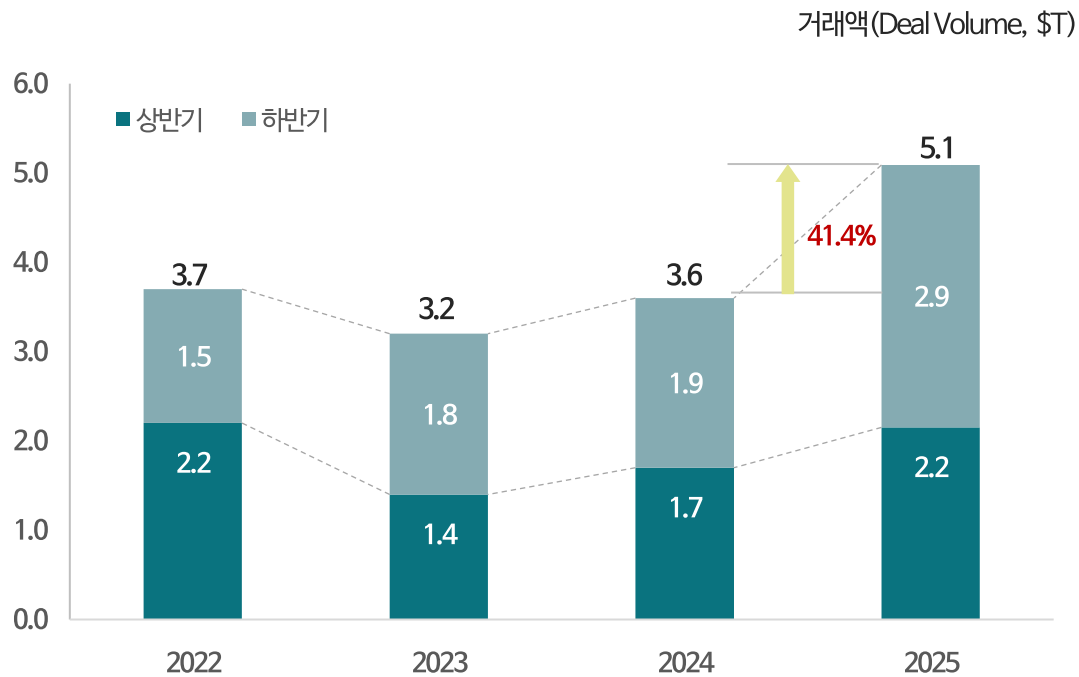
IV.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V.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글로벌 M&A 시장 전망 - 2025년 M&A 시장 점검 : 2025년 '메가딜 중심'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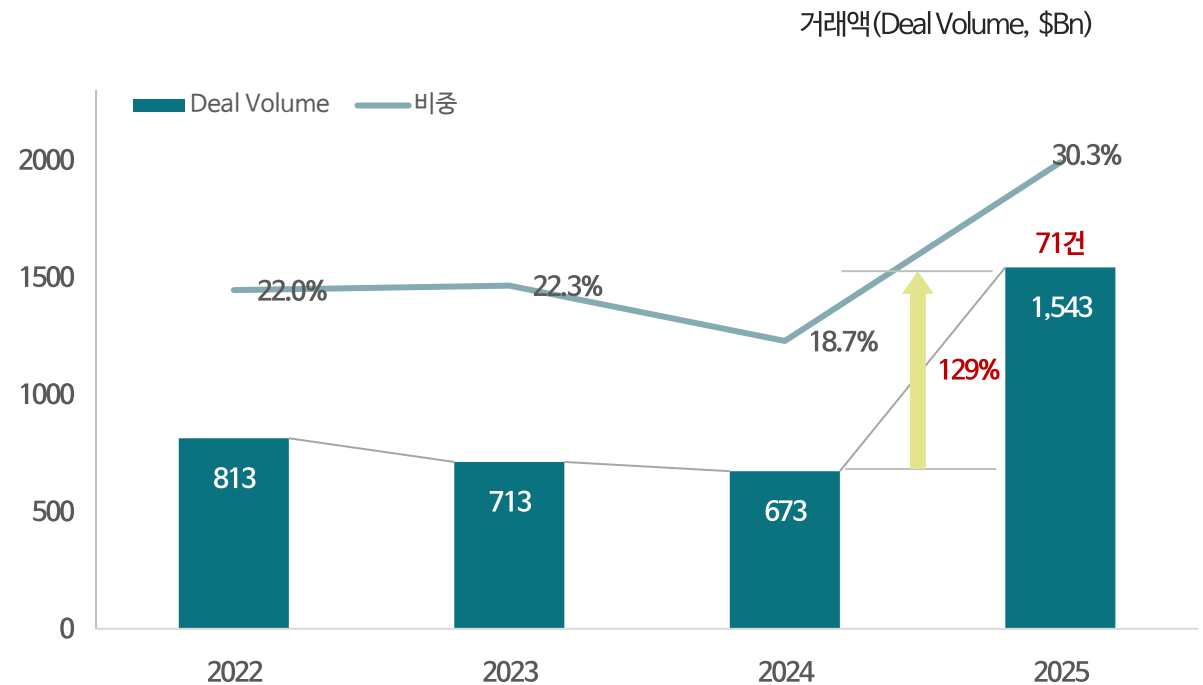
글로벌 M&A 시장은 2023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25년 5.1조 달러 규모로 강하게 반등했으며, 메가딜 거래 총액이 129%, 비중이 30.3%까지 확대되면서 '메가딜 중심'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M&A 시장 규모 추이 (2022년~2025년)⁴⁾



- ☑ 상반기 < 하반기의 상低 하高 패턴 반복 ('22년 금리 충격으로 예외)
➔ 2026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거래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 2025년 (5.1조 달러)은 2024년(3.6조 달러) 대비 41% 증가하며 반등 폭이 가장 높

100억 달러 이상 메가딜 (2022년~2025년)⁴⁾



- ☑ 메가딜의 비중이 18.7%~22.3% ('22년~'24년) → 30.3% ('25년)
- ☑ 2025년 메가딜 증가율(+129.3%)은 전체 M&A 시장 성장률(+41%)의 약 3배
➔ 시장의 성장이 중소형 딜이 아닌 메가딜에 의해 주도

글로벌 M&A 시장 전망 - 2026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거래' 기록, 그러나 '양극화'에 주목

2026년 글로벌 M&A 시장에서는 회복 국면을 넘어 'K-커브 양극화', 'AI 중심의 산업 재편', '미국으로의 자본 집중'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확장과 매각 등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A 시장 핵심 지표 (2025년~2026년 1분기)

구분	수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25(연간)	2026년 1분기	
총 거래액 ²⁾³⁾	약 5.1조 달러	약 1.3조 달러	전년대비 41% ('21년 이후 최고)
100억 달러 이상 빅딜 ⁴⁾⁵⁾	71건 (약 1.5조 달러)	22건	사상 최다
거래 건수 ⁴⁾⁷⁾	약 35,000~37,000건	약 8,500~9,000건	17% 감소
Tech 산업 비중 ⁸⁾⁹⁾ (AI M&A)	약 30~35%	67% (6건 중 4건)	-
국경 간 M&A 중 미국 비중 ⁶⁾⁷⁾	약 45~48%	52.4%	4~7%p 증가

2025년~2026년 1분기

글로벌 M&A 시장의 3대 구조적 변화

K-커브 양극화 고착

- 총 거래액(▲ 41% 증가) VS. 거래 건수(▼ 17% 감소)
→ 대형딜이 시장 주도하는 반면, 중소형 딜의 소외
 - (대기업·대형 PE) 메가딜 주도하며 시장 장악
 - (중소·중견기업) '인수자'로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피인수대상'으로 전략할 위험
 - 금리 부담, 자금조달 어려움, 밸류에이션 괴리 → Mid-Market 붕괴
- ➔ 대형 전략 딜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AI가 M&A의 절대적 동력

- AI가 M&A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 대형 거래 중심으로 AI 관련 M&A가 급증
 - AI 경쟁력 없는 기업은 밸류에이션 할인과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
 - AI 내재화를 위한 공세적 M&A 확대
 - 기술·데이터·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수가 증가
- ➔ 모든 M&A 거래에서 AI 영향 분석 필수, AI 실사 역량의 고도화가 성공의 핵심

미국으로의 자본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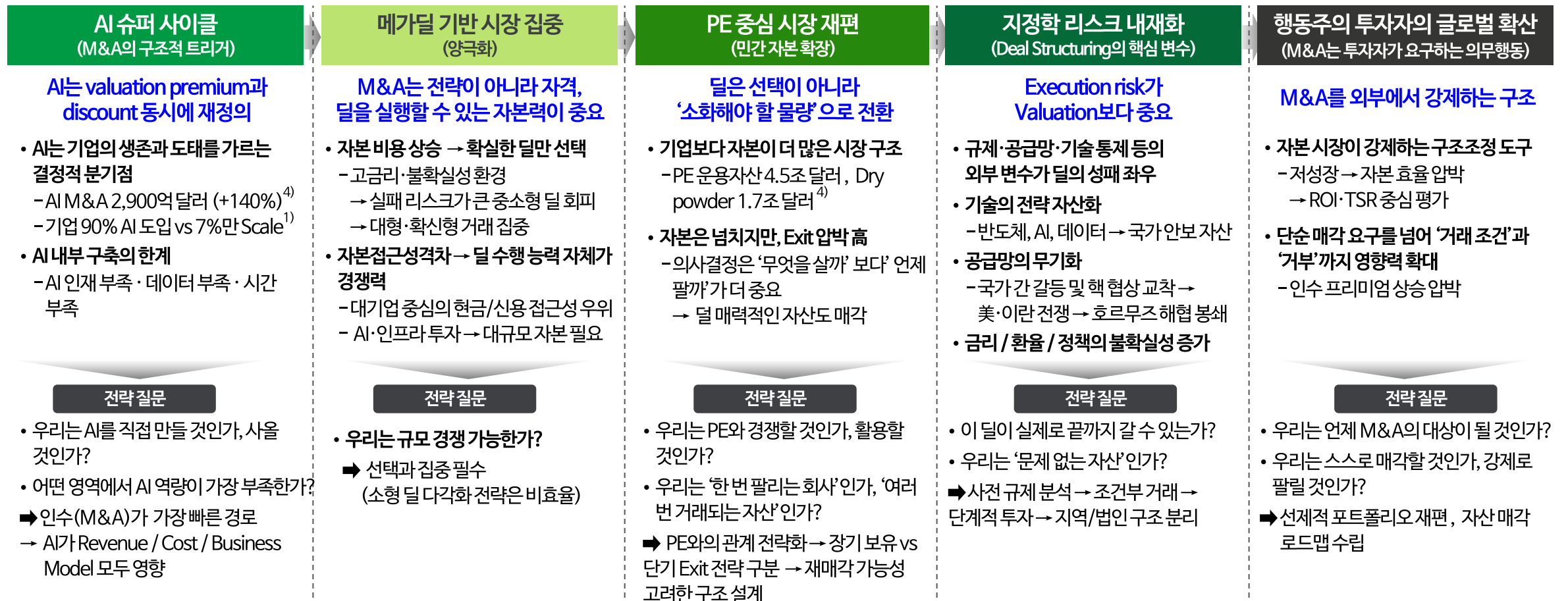
- 이란 전쟁 등 중동 리스크 확대 → 글로벌 자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으로 유입
 - 지정학적 충격 이후에도 대형 전략 딜은 지속
 -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AI 메가딜 발표, 우호적 규제 환경 → 거래액 급증
 - (3월 전쟁 후) 유가 급등 (배럴당 100달러), 투자심리 위축 → 거래액 감소
- ➔ 미국 자산 인수 시 경쟁 심화 및 프리미엄 상승 예상

Note 1) 글로벌 M&A 시장은 본질적으로 비표준화된 장외거래(OTC, Over The Counter) 성격을 띠고 있어, 기관별 지표 정의와 집계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리포트는 단일 수치를 특정하고 의존하기보다 복수 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각 수치를 범위(Range)로 제시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구조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글로벌 M&A 시장 전망 - M&A,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되는 5대 동인

AI, 메가딜, PE, 지정학 리스크, 행동주의가 M&A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전략적 질문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글로벌 M&A 시장을 움직이는 5대 핵심 동인



글로벌 M&A 시장 전망 - 포트폴리오 재편·AI 선점·가치 극대화

M&A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레거시 자산의 전략적 정리, AI 역량의 선제적 확보, 그리고 인수·매각 전반에 걸친 가치 극대화를 균형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M&A 시장 핵심 지표 (2026년 ~2027년 전망)

지표	전망 수치	
	2026년 하반기	2027년 전망
총 거래액 ³⁾⁴⁾	2.5~2.8조 달러	5.5~6.0조 달러 (연간)
100억 달러 이상 빅딜 ⁶⁾	분기당 20~25건 지속	연간 80~90건
Tech 산업 비중 ⁵⁾ (AI M&A)	60~70% 유지	70% 이상으로 확대
Global PE Dry Powder ¹⁰⁾	3.7~3.9조 달러	3.9~4.2조 달러

전망의 주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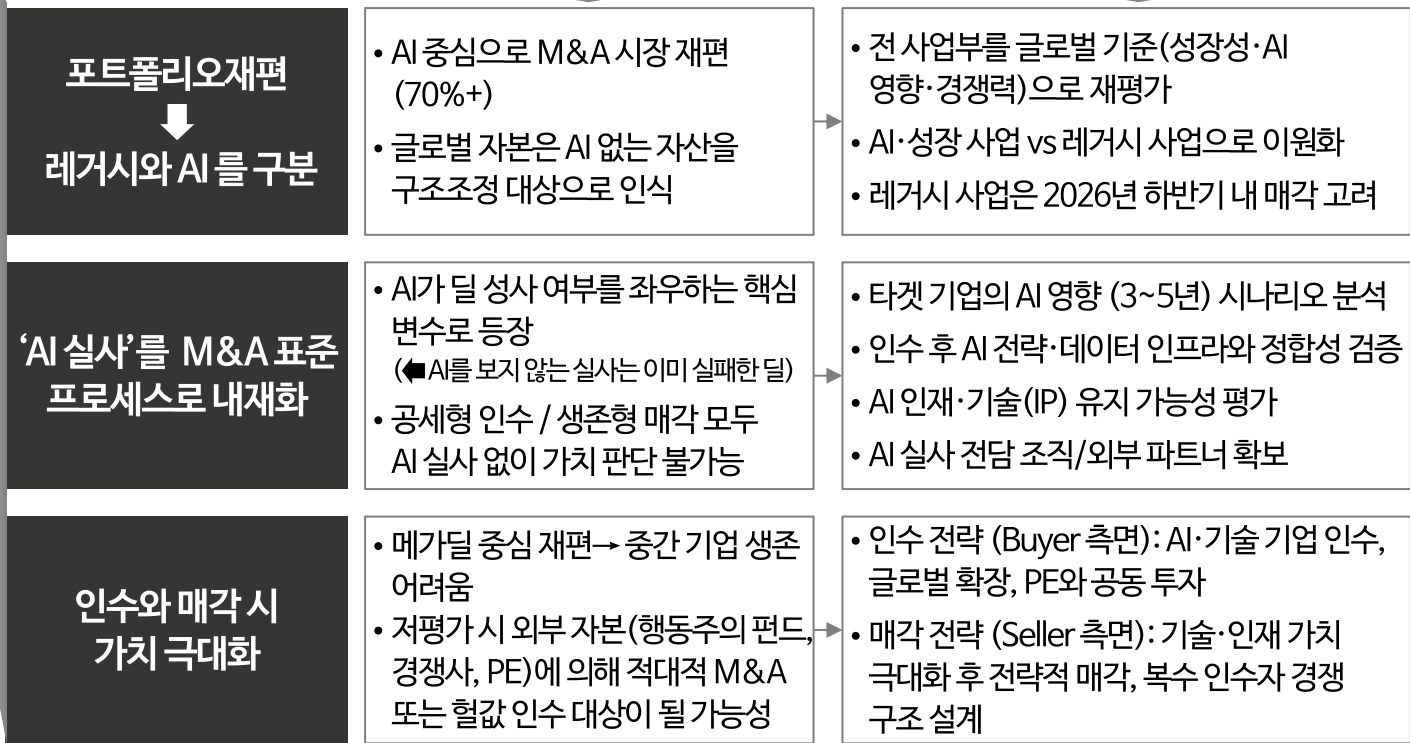
- ☑ 금리의 점진적 인하 → 자본 조달 비용 ↓ → 딜 활성화
- ☑ AI 투자 지속 확대 → 기업의 투자 우선 순위로 고정
- ☑ LP(연기금, 기관투자자)의 DPI(Distribution to Paid-In) 요구 증가 → GP의 현금화 압박 → Exit 증가
- ☑ Aging Dry Powder(2~3년 이상 미집행자금) 비중 증가로 GP들의 투자 집행 압박

'26년 하반기 대응 방향

M&A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 과제

Why Now

Strategic Initiatives



I.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II. 글로벌 M&A 시장 전망

III. 국내 M&A 시장 전망

- 2025년 M&A 시장 점검: 폭발적 반등
- 사업 재편의 전략적 도구로 M&A 활용
- 2026년 하반기는 100조원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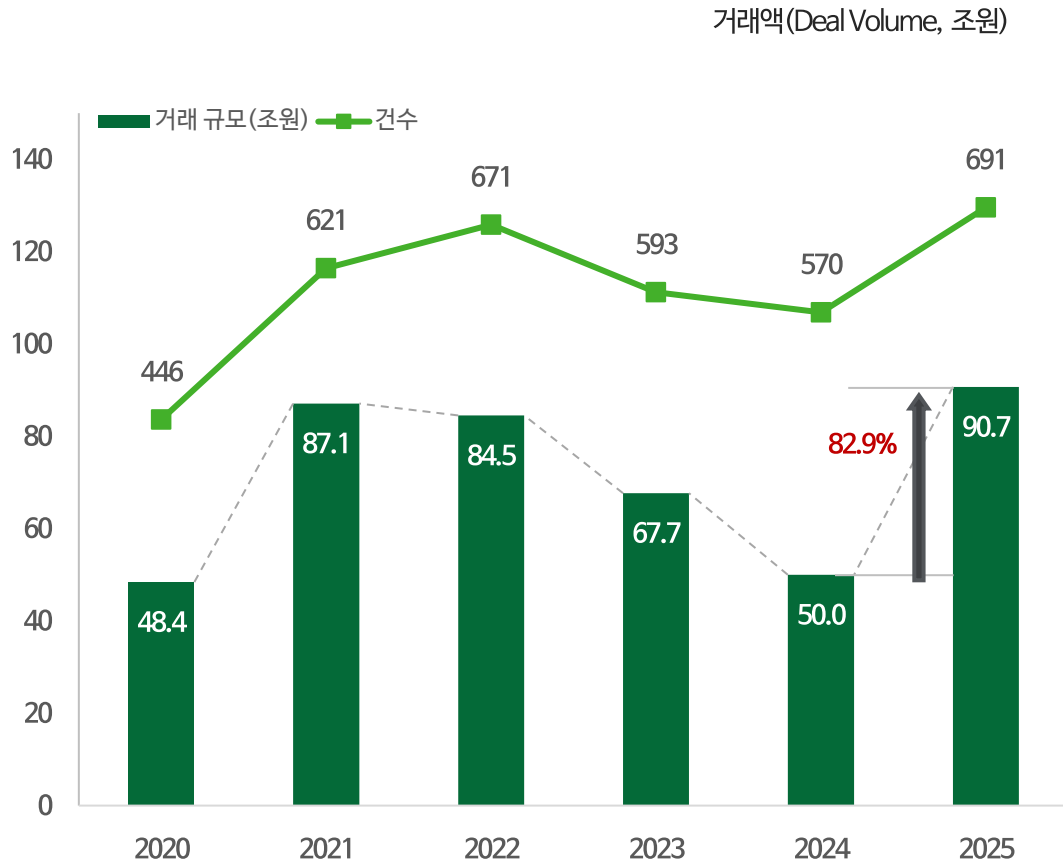
IV.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V.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국내 M&A 시장 전망 - 2025년 M&A 시장 점검: 폭발적 반등

2025년 국내 M&A 시장은 대기업의 사업재편, 섹터 통합(플랫폼·K-뷰티), 금융권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승계형 M&A 급증 및 사모펀드의 적극적 행보 등의 공세적 동인으로 90.7조원(▲82.9%)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M&A 시장 규모 추이 (2022년~2025년)¹¹⁾



Why

2025년 국내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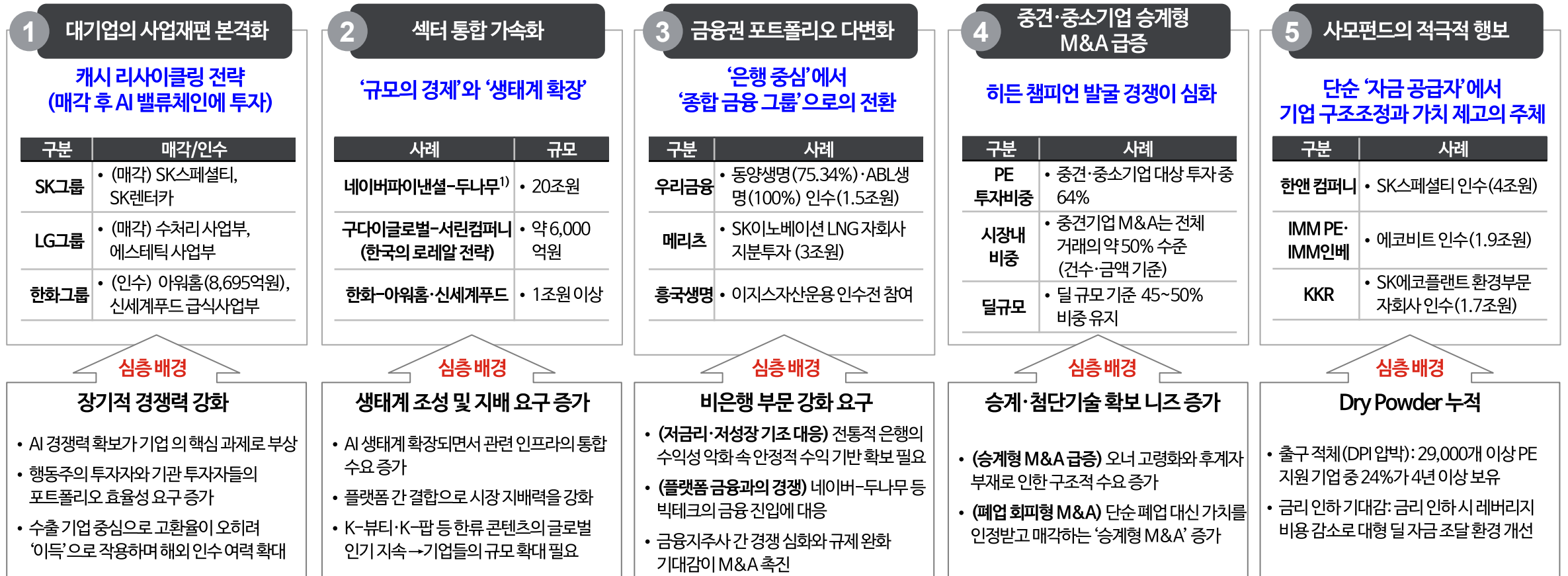
국내 M&A 거래액 증가 동인

- 1 대기업 사업 재편 본격화**
 - (카브 아웃)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비핵심 계열사와 자산 정리
 - (캐시 리사이클링)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AI·반도체·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재투자
- 2 섹터 통합 가속화**
 - (K-뷰티 통합) 구다이글로벌의 서린컴퍼니(라운드랩)인수
 - (플랫폼 결합) 네이버 파이낸셜-두나무 메가 핀테크 플랫폼
 - (콘텐츠·미디어 결합) OTT의 오리지널 IP 확보 및 제작사 인수 증가
- 3 금융권 포트폴리오 다변화**
 - (우리금융의 생보 시장 복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1.55조원)로 11년 만에 생명보험 시장 재진입
→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금융 그룹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 4 중견·중소기업 승계형 M&A 급증**
 - 중소기업 대표 평균 연령 60세 근접, 후계자 부재 리스크 확산
 - 전체 M&A 시장에서 중견기업 M&A는 건수 및 금액 기준 약 50%
- 5 사모펀드의 적극적 행보**
 - 국내 PE, 대기업 핵심 계열사 인수 (e.g. 한앤컴퍼니, SK 스페셜티 인수)
 - 해외자본의 ESG 투자 및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국내 M&A 시장 전망 - 사업 재편의 전략적 도구로 M&A 활용

2025년 국내 M&A 시장 성장의 배경은 AI 전환 압박(대기업), 저성장·고금리 대응(섹터·금융권), 폐업 회피(승계형 M&A), 자금 집행 압박(PE)등의 요인으로 요약됩니다.

국내 M&A 시장을 움직이는 5대 핵심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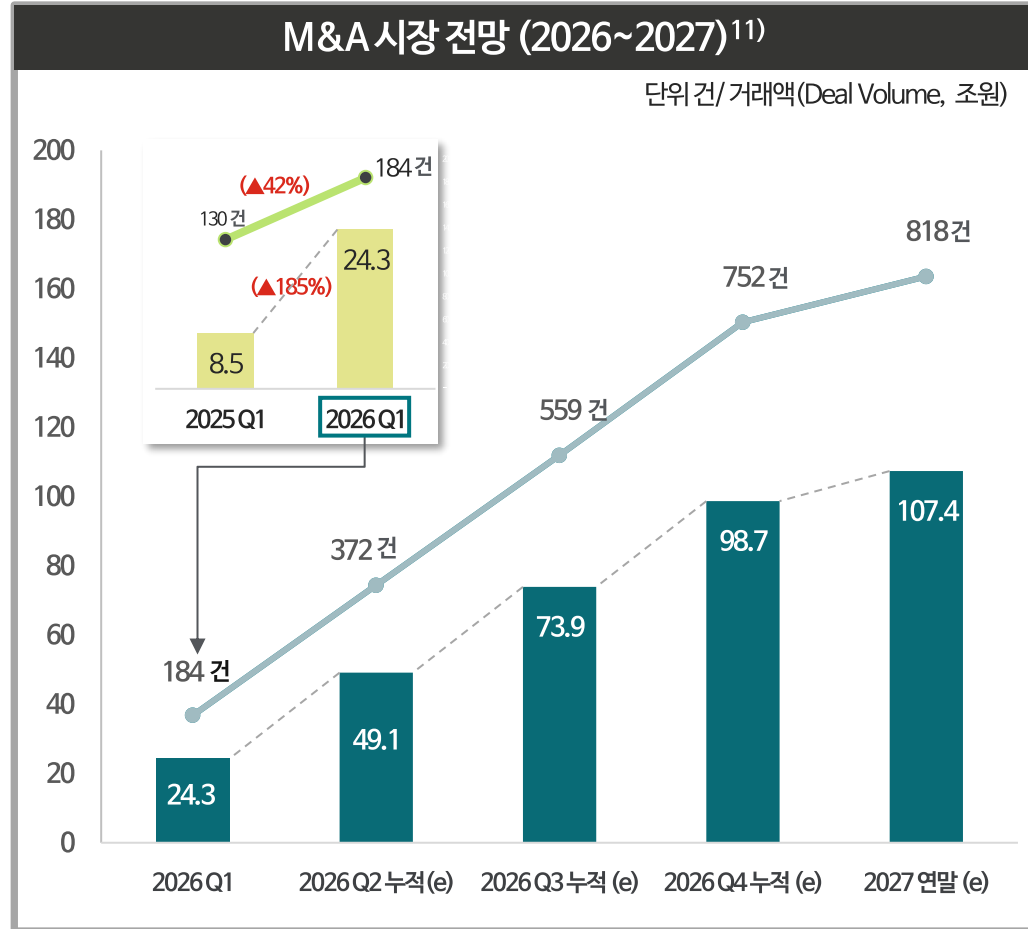


Source) 언론사 종합; Deloitte Insight Analysis

Note 1)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규제 변수 속에서 '진행이 지연된 상태'에 있는 빅딜

국내 M&A 시장 전망 - 2026년 하반기는 100조원 대 근접

2026년 M&A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와 'AI 기술 확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100조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Why

2026년 하반기~ 2027년 전망 국내 M&A 시장 전망 및 주요 성장 동인

시나리오	2026년 하반기	2027년	조건
낙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조원대 근접 AI M&A 본격화, 대형 딜 성사 Dry Powder 집행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조원 돌파 AI M&A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인하 본격화, AI 투자 확대
중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술 확보형과 안전자산 선호형 M&A가 동시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100조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경제 불확실성 지속
비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M&A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위축, PE 활동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 리스크 확대

심층배경

'공세적, 방어적' 투자 공존

유형	목적	주요 거래 분야	전망 배경
공세적 M&A	AI 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틱스 분야 → 성장성과 기술력 중심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M&A 확대 지속 로봇틱스,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콘텐츠·UX 등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M&A 확산
방어적 M&A	안전 자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에너지 자산·안정적 소비재 → 현금흐름 안정성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 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본격화 2027년부터는 PE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다시 재계될 전망

Note 1) '26년 하반기과 '27년 전망수치는 지난 5년간(2021~2025) 평균 성장률 8.8% 적용

I.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II. 글로벌 M&A 시장 전망

III. 국내 M&A 시장 전망

IV.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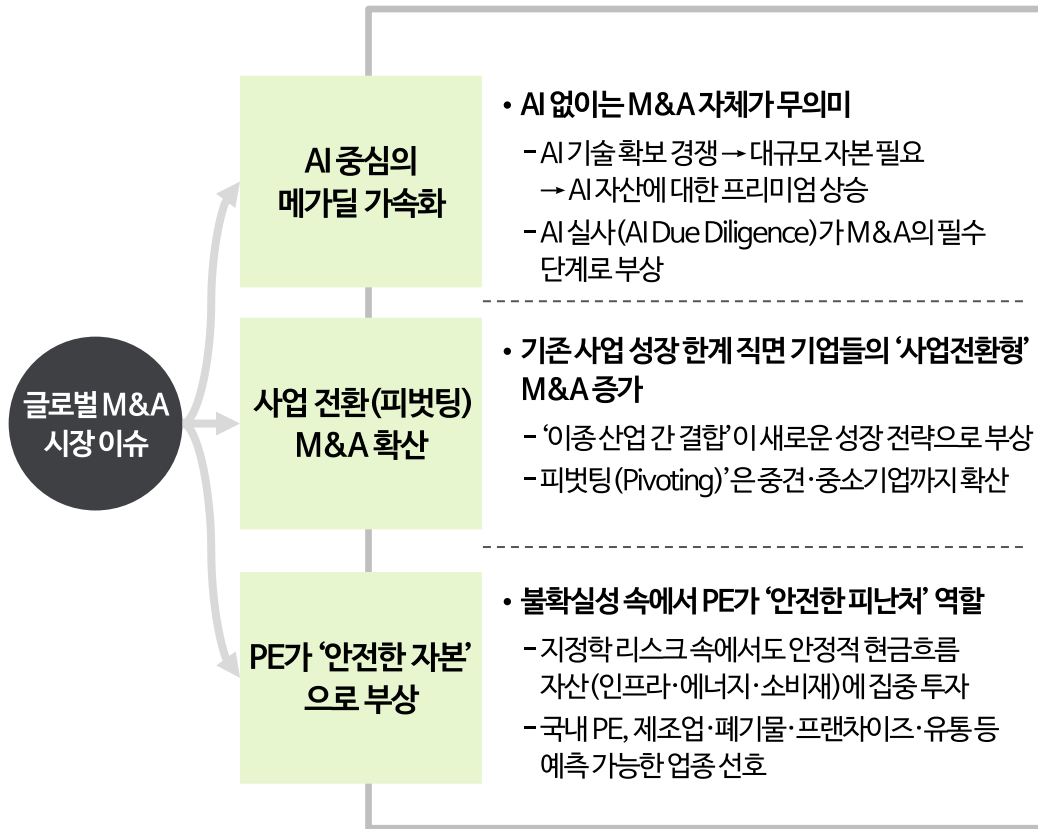
- 新 성장 동력 확보(사업 전환형 M&A) 움직임
 - AI·인프라
 - 반도체·소재
 - 모빌리티
 - 바이오·헬스케어
 - 에너지·인프라
 - 소비재·유통
 - 금융서비스
- 2026년 하반기 산업별 M&A 전망 - 산업별 M&A 포지셔닝
- 2026년 하반기 M&A 전략 및 실행 과제

V.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新성장 동력 확보(사업 전환형 M&A) 움직임

2026년 하반기 AI·인프라·반도체·모빌리티 등 기술 중심 산업에서는 공세적 인수가, 바이오·에너지·소비재·금융 등에서는 전략적 통합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전개되며, PE는 안전자산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산업의 M&A 핵심 동인



2026년 하반기 전망

2026년 산업별 M&A 추진 동향

AI·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밸류체인(전력→데이터센터→반도체→소프트웨어) 전반 M&A 본격화 •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이종 산업 간 결합 증가
반도체·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반도체 수요 증가, 대기업 비핵심 소재사업 매각 지속 • 반도체 밸류체인 내 통합 M&A 확대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V 전환 압박 및 전동화 전략 재정비 • 현대 모비스, 로봇 액추에이터·관절 모듈, 차량 SoC 반도체 내재화 병행 추진
바이오·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6조원 물적분할 등 대규모 구조조정
에너지·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인프라 M&A 확대 • AI 전력 수요 증가, PE 안전자산 선호
소비재·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통합 가속화, 글로벌 PE 관심 지속 • K-푸드·K-패션으로 확산, 글로벌 유통망 인수 증가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부문 M&A 지속, 저축은행 규제 완화 시 M&A 활성화 • 보험·증권 등 비은행 자산 확보 경쟁 심화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AI·인프라

AI 추론 수요의 급증으로 전력·데이터센터 수요 또한 함께 폭증하며, 데이터센터와 전력 통합, AI 반도체 투자, AI 플랫폼 확보 및 이종 산업 간 결합의 방향으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AI M&A는 '인프라 지배력 확보 경쟁' 으로 전환

주요 배경 및 동인

전력·데이터센터 수요 폭증	• 추론 수요 폭증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 발전소, 전력망 자산 인수 증가
AI Capex 경쟁 → 인프라 확보	• AI를 둘러싼 대규모 투자 증가 → M&A를 통해 핵심 기술과 인프라 선제적 확보 추진 • 기술·자본력 갖춘 기업은 인수자, 그렇지 못한 기업은 거래 축소
SI-FI 공동 투자 구조 확대	• SI 사들의 AI 개발 역량과 데이터 확보 니즈 증가 → FI와 공동으로 투자
이종 산업 간 결합	• 데이터센터는 전력, 냉각, 부동산, 통신 인프라 필요 → 테크·에너지·산업재·부동산 융합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수직 통합	• DIG에어가스 인수 (프랑스 에어리퀴드)	• 4.8조원 (완료)
	• SK-KKR 신재생에너지 합작사	• 5조원 (진행중)
	• 삼성SDS, KKR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	• 1.22조원 (CD 발행)
AI 반도체 (팹리스) 전략 투자	• SK스페셜티매각 (한앤컴퍼니)	• 2.7조원(완료)
	• 리벨리온 Pre-IPO (국민성장펀드 첫 직접투자)	• 6,400억원 (진행중)
AI 플랫폼·SW 역량 확보	• 네이버·두나무 (AI·데이터 기반 메가 핀테크) 플랫폼	• 20조원 (진행중)
통신·에너지·건설 간 이종 연합	• SKT·KT·LG유플러스초대형 AI DC 구축	• 진행중 (검토단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에너지-통신-AI 통합 M&A 증가
- 대형·전략적 딜 중심 시장 재편, 기술 없는 기업 도태
- 데이터센터 투자자 구조 변화
→ 통신사 비중 감소, 사모펀드(PEF),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FI(재무적투자자)가 시장 주도

유망거래 부문

-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SK그룹-AWS 울산 데이터센터 조성)
- 통신사 AIDC (통신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 AI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데이터 관리 부문 (사이버 보안 M&A)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반도체·소재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대기업은 비핵심 소재 사업을 매각하고, PE와 해외 자본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웨이퍼·소재·후공정)을 적극 인수하는 ‘캐시 리사이클링’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술 패권 경쟁’과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재편

주요 배경 및 동인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 인프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2~3년간 AI 슈퍼사이클 기대감 확산 메모리 반도체가 AI 데이터센터·서버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 빅테크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
대기업의 포트폴리오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카브아웃(Carve-out) 지속 → 주요 대기업, AI·반도체 집중을 위해 비핵심인 소재·화학 사업 매각 지속 캐시 리사이클링 → 매각 자금으로 AI 반도체·첨단 소재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
반도체 첨단소재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웨이퍼·특수가스·포토마스크 등 첨단 소재 기업 가치 상승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대기업 캐시 리사이클링 (비핵심 매각 → AI·반도체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스페셜티 매각 (한앤컴퍼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조원(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화학 수처리 사업부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조원(완료)
반도체 밸류체인 통합 (전·후공정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그룹 SK실트론 인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조원(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화그룹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중 (반도체 M&A 후보군 물색중)
PE의 적극적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JKL파트너스-리온 인수 (반도체 공정 소모품 기업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0억원(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U IB캐피탈-日 Sunprosyst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50억원 (완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SK실트론 딜 연내 거래 종결전망
- 대기업 카브아웃 지속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M&A 증가
- AI 반도체 팹리스 투자 확대 → 리벨리온 IPO, 퓨리오사시 추가 | 투자 유치 등 AI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

유망거래 부문

- 반도체 웨이퍼·소재
- 반도체 첨단 소재 (특수가스·포토마스크)
- 반도체 후공정(테스트·패키징) → AI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후공정 중요성 부각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모빌리티 산업은 SDV·자율주행·로보틱스 중심으로 재편되며, 비핵심 부품 사업을 매각하고 미래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M&A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모빌리티 핵심 기술 내재화를 위한 전략적 M&A 추진

주요 배경 및 동인

완성차 핵심 밸류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어·배터리·열관리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핵심 부품 포트폴리오를 강화 비핵심 매각·하드웨어 밸류체인 보강·SW·로보틱스·반도체 역량 내재화
자율주행·SDV 역량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화 전략 재정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125.2조원을 투자해 SDF 전환 추진
부품사 구조적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저가 공세와 마진 축소로 범퍼·램프 등 전통 부품 사업 경쟁력 약화 정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상 4,030억원 금융지원(시설·R&D·M&A 자금 최대 8년 이차보전)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밸류체인 보강 및 미래 경쟁력 확보	•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매각	• 진행중
	• 한앤컴퍼니-한온시스템인수	• 지분 19.5% 확보
	• 현대차-엔비디아 협력 확대 (DRIVE Hyperion 도입, 레벨2~4 확장 아키텍처 구축)	• 진행중
글로벌 공급망 확보·다변화	• 현대모비스 범퍼사업부 해외 법인 매각 (북미·중국·유럽 등 해외 생산 설비 5곳 매각)	• 3,000~4,000억 원(진행중)
	• 한투PE-기광산업 투자	• 350억원(완료)
부품사 구조조정·PE 투자	• 한앤컴퍼니-코아비스매각(키스톤 PE 인수)	• 약 1,000억원(완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현대모비스 범퍼사업부 매각 마무리 (4월 28일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연내 거래 종결 전망)
- 현대 모비스 아틀라스용 액추에이터 양산 본격화, 추가 부품 (그리퍼·제어기·배터리팩) 양산 결정 여부 주목
- 현대차·기아, 엔비디아 협력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 (레벨2 기술 선제 도입 및 레벨4 로보택시까지 확장 계획)

유망 거래 부문

- 현대 모비스 추가 매각 가능성 高 (배터리 시스템 제조 법인 등)
- 정부 금융지원(4,030억원) 및 구조조정 M&A 수요 증가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헬스케어 M&A 시장은 특히 만료와 약가 인하에 대응한 빅파마(신약 확보), 중견 제약사(사업 전환), 자본 재배치 (플랫폼/CDMO)에 더해 VC 투자 중심이던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PE의 바이아웃까지 가세하며 M&A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특히 절벽과 약가인하라는 이중 압박의 탈출구로 M&A 선택

주요 배경 및 동인

(글로벌 빅파마-수요자)
특히 절벽(Patent Cliff)과 빅파마의 '강제 구매'

- 특히 만료로 인한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빅파마의 절박한 수요
→기술이전·인수·공동개발 증가

(국내 중견 제약사-공급자)
약가 인하 정책과 제네릭 사업구조의 수익성 악화

-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률 (53.55%→40%)
-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중견 제약사의 생존 위기

(바이오텍, PE-기술 공급자·자본)
M&A가 현실적 엑시트(Exit) 경로로 부상

- IPO 침체 속 M&A가 주요 자금 회수 경로로 부상
- 상업화 경로가 검증된 CDMO·의료기기·헬스케어 서비스 자산으로 자금 이동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신약개발 및 파이프라인 확보 (기술이전·인수)	• 리가캠바이오 (ADC 기술)	• 글로벌 빅파마대상 기술이전 논의 진행
	• 셀트리온 (비만치료제)	• 차세대 블록버스터시장 선점 경쟁
	• 알테오젠 (피하주사 플랫폼 기술)	• MSD·아스트라제네카등 6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 완료
CDMO·생산 플랫폼 강화	•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인수	• 진행중
	• IMM PE의 제뉴원 사이언스 엑시트	• 완료(2024년, 약6,2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 매각)
	• IMM PE-시지바이오 인수	• 진행중 (제뉴원 성공 이후, PE의 CDMO·의료기기 투자 확대 흐름)
	• HLB그룹-애니젠 인수	• 완료 (약 250억원, 국내 유일 펩타이드 GMP 시설 확보)
약가인하 대응 생존형 전환	• GC녹십자웰빙-이니바이오 인수	• 완료 (보툴리눔 독신 확보)
	• 동구바이오제약-아름메디스 지분 인수	• 완료 (필러 기업 최대 주주 등극)
	• 안국약품-디메디코리아 인수	• 수면테크·생활형 의료기기 기업 인수
에스테틱·의료 기기 자산거래	• 클래스스 경영권 매각 (베인캐피탈)	• 진행중
	• 바임 경영권 매각	• 진행중
디지털 헬스·AI 역량 확보	• 삼성전자-젤스(Xealth) 인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인수)	• 1억 1,500만 달러(완료)
	• 삼성전자-그레일 투자 (암 조기 진단 AI 기술 확보)	• 1.1억 달러 (진행중)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약가인하 정책 시행 (2026년 7월~)
→ 중소 제약사 구조조정 M&A 본격화
→ R&D 내재화로 약가 프리미엄 확보 전략 (e.g. 일동제약 제노비아 재흡수 등)
- 특히 절벽 대응 M&A 지속 (ADC, 비만 치료제, CNS 중심)
- PE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가 가속화 (경영권 인수, PE 바이아웃 확대 전망)

유망 거래 부문

- ADC·비만·CNS 등 신규 모달리티 (빅파마 특허 절벽의 최우선 타깃)
- 제네릭 중심 중견 제약사 구조조정 (안국제약, 동구바이오, 경동제약)
- 진단·의료기기·에스테틱 자산에 대한 PE 바이아웃 및 경영권 매각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에너지·인프라

에너지·인프라 산업의 M&A는 AI 전력 수요 폭증을 배경으로, 전력망·송배전·변압기·ESS·열관리 등과 같은 전력 ‘연결·운영 인프라’를 선점하는 경쟁으로 전개 될 것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며, 전력·에너지 자산이 ‘필수 생산 요소’로 격상

주요 배경 및 동인

AI 데이터센터 확산 → 전력·인프라 수요 폭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중장기 2~3배 이상 확대) 전력망·ESS·냉각 등 보조 인프라까지 전략 자산화
전력 인프라 병목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보다 송배전·접속·용량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전환
PE의 안정적 현금흐름 자산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 장기 계약 기반 수익 구조와 규제 진입장벽을 갖춘 인프라 자산 선호 (e.g. 재생에너지·전력망·ESS)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성장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전력 수요로 SMR 기업 가치 급등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포트폴리오 재편형 매각	• SK이터닉스 지분 매각 (KKR)	• 약 2,478억원 (지분 30.98%), 진행중
	• SK이노베이션, DOPCO 지분매각 검토	• 약 4,000억원 (지분 41%), 검토중
	• SK-KKR 신재생에너지 JV	• 5조원 규모(진행중)
플랫폼 형 인수 (PE 중심)	• IMM PE - 에코비트 인수	• 2조원(완료)
	• IMM, 케이에코 인수 추진	• 1400억원(진행중)
	• 한투 증권, 동미전기공업 인수 추진	• 5,000억원(진행중)
	• 거케이피털 코엔텍 지분 인수 (10%)	• 7350억원(진행중)
AI 인프라 연계형 볼트온	• LS일렉트릭 - 美 빅테크 배전반 공급	• 1,700억원(완료)
	• LS파워솔루션 - 초고압 변압기 공급	• 1,066억원(완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대형 발전 자산 거래 감소, 전력망·냉각·ESS 등 세부 인프라 거래 증가
- 상위 기업은 AI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 하위 자산은 매각·재편, PE 흡수 시장 → 이중 시장 구조 형성
- AI·전력설비 투자 확대 지속 → 자본조달규모 및 리스크 증가 → 리스크 분산 위해 SI와 FI 공동 투자 확대

유망 거래 부문

- 전력망·송배전·변압기·전력기기
- 에너지저장장치(ESS)
- 열관리·냉각 인프라
- 환경 인프라 플랫폼 (e.g. 수처리, 폐기물·소각)
- 전력반도체·전력전자(SiC/GaN)

Source) 언론사종합; Deloitte Insight Analysis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소비재·유통

소비재·유통 부문의 M&A는 PE주도의 브랜드 롤업, 제조기반 확보를 위한 인수, 채널 장악 및 프랜차이즈 바이아웃이 진행되면서 성장하는 분야와 내수부진 업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성장 자산 확보와 부진 자산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극화된 포트폴리오 재편’

주요 배경 및 동인

K-뷰티 글로벌 성장과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중국 24.5%, 미국 18.6%, 유럽 13.9%, 일본 10.2%로 분산 K-뷰티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M&A 촉발
단일브랜드 → 포트폴리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재 기업은 M&A로 멀티브랜드 구조 선호 브랜드 연속 인수 → 포트폴리오 확대 → 기업가치 증대 → 엑시트 → 멀티 브랜드 플랫폼화
유통 경쟁의 본질 변화: 브랜드 → 채널 장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기업 → 오프라인 점점 확보 (고객 경험·브랜드 강화) → M&A 추진 오프라인 기업 → 온라인 판매망·데이터 확보 (매출·효율 개선) → M&A 추진 채널 간 보완이 아니라 옴니채널 지배력 확보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뷰티 브랜드 롤업 (포트폴리오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다이글로벌 - 서린컴퍼니(라운드랩), 라카코스메틱스 순차적 인수 메디큐브(디바이스)와 에이프릴스킨·포맨트(화장품)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완료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레알-고운세상코스메틱(닥터지)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 ('25년)
제조·ODM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JKL파트너스·퀸테사·헤임달PE - 지디케이 화장품매각 → 린드먼아시아인베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경에코-케이피티(KPT) 인수 (PE와 공동 인수, 생산설비 인력 고용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인베스트먼트-시그니처코리아 인수 (화장품 용기사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 ('25년)
유통 채널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매각 (근거리 유통 플랫폼 인수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R 글로벌 유통망 확보 (아마존·틱톡샵·얼타뷰티·큐텐 등 플랫폼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 ('25년)
프랜차이즈 바이아웃 및 회생형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맘스터치 (KL&파트너스보유 지분 100%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경산업 생활용품 회사매각 (태광그룹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4700억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K-뷰티 중심 성장 딜 지속 (수요가 검증된 K-뷰티 제품의 유통 채널 확대) → 하반기 가장 활발한 거래 영역
- 비뷰티는 선별적 구조조정형 거래 확대 (전통 유통·외식 등)
- 외형 확장형 대형 메가딜보다 중형 포트폴리오 보강 딜 우세 (브랜드·채널·제조역량 확보)

유망거래 부문

- 중소·중견 K-뷰티 브랜드
- 화장품 OEM/ODM·부자재 기업
- D2C·온라인 유통, 검증된 프랜차이즈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문의 M&A는 비은행 확장, 빅테크 진입, PE 자본 유입, 규제 완화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며, 보험·캐피탈 등 성장 자산 확보 경쟁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핀테크·디지털자산 영역의 투자 중심 거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진 배경 및 동인

왜 M&A가 일어나는가?

비은행 확장·플랫폼 경쟁·자본 재배치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주요 배경 및 동인

비은행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의 본질: 금리 → 포트폴리오 경쟁 -은행 중심 → 비은행 중심 구조 전환 -보험·증권·자산운용 등 수익 다각화 필요성 증가
빅테크의 금융 진입 (네이버 - 두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으로 전환 -금리·상품 → 플랫폼·고객 데이터 -채널·접점·라이선스 확보 경쟁 심화
자본·규제 환경 변화 (PE 자본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규제가 M&A의 제약으로 작용 (저축은행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소유 제한, 영업구역별 합병 금지 등)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시 → PE 자본 유입 확대 → 저축은행 업권 재편 및 M&A 활성화

M&A 추진 방향 및 사례

어떤 방식으로 M&A가 일어나는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 (생보·캐피탈·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금융-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교보생명-SBI저축은행 지분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조건부 승인 (1.5조원) 9,000억원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KB자산운용, 美 ETF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20조원) 진행중
디지털·플랫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전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패키지 매각 페퍼저축은행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중 (1,000억) 약 1조원 (진행중) OK 금융 인수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 대응 (저축은행 M&A)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패키지, 페퍼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완료 진행중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 하반기 전망

- 은행 대형 M&A는 제한적
- 보험·캐피탈·저축은행 중심 재편 지속
 - 저축은행 → 구조조정 본격화
 - 보험 → 금융지주 필수 포트폴리오
- 핀테크는 소규모 전략 투자 중심 확대 (인수보다 지분투자·제휴)
- 상위 금융지주 → 비은행 확장 경쟁
- 중소 금융사 → 매각/통합 압력
- PE → 지속적 유입 및 Exit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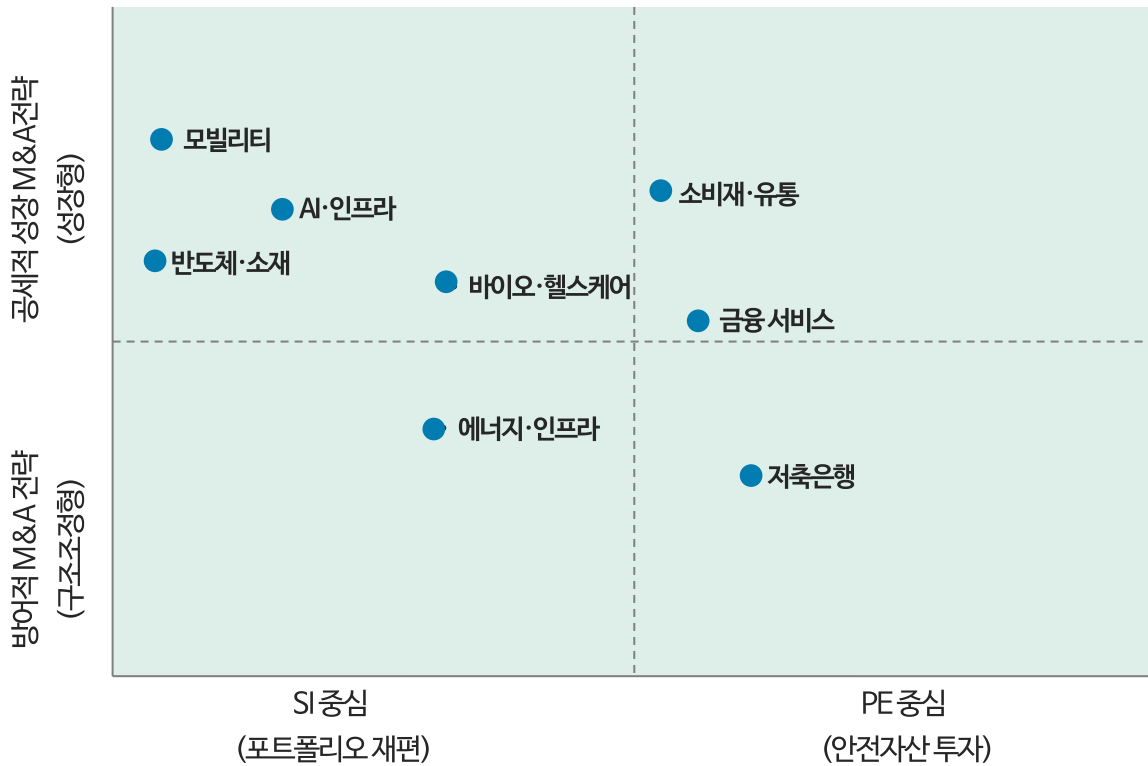
유망 거래 부문

- 보험 (금융지주 확장의 핵심)
-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시 급증
- PE·금융지주사의 카드사 관심 지속
- 디지털자산 / STO
 - 초기단계지만 전략 투자 확대

2026년 하반기 산업별 M&A 전망 - 산업별 M&A 포지셔닝

2026년 하반기 M&A 시장에서 SI(대기업)는 AI·모빌리티·반도체에서 공세적 인수를, PE는 소비재·금융·에너지에서 안전자산 위주의 방어적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 산업에서는 'K-커브 양극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2026년 하반기 M&A 산업별 포지셔닝



(가로) M&A 성격주체	• 왼쪽: 전략적 투자자(SI) 중심 / 오른쪽: 재무적 투자자(PE) 중심
(세로) M&A 성격주체	• 아래: 방어적·구조조정형 / 위: 공세적·성장형

인사이트	산업별 하반기 전망
AI·인프라	• AI 밸류체인 선점 위한 빅테크·대기업 주도 인수
반도체·소재	• AI 반도체 기술 확보 위한 대기업 주도 투자
모빌리티	• OEM → 구조조정 압력 증가SDV / AI 영역 → 성장 투자 • SDV·자율주행·로봇틱스 기술 내재화
바이오·헬스케어	• 빅파마는 신약 파이프라인(공세적), PE는 에스테틱·CDMO(안정적 투자)로 투자 성격이 완전히 분리
에너지·인프라	• 상위 자산(재생에너지 플랫폼)은 PE 주도 확장, 하위 자산(노후 인프라)은 대기업 매각(방어적)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
소비재·유통	• K-뷰티 브랜드 롤업, 프랜차이즈 바이아웃 등 PE의 '사고팔기' 전략이 소비재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전망
금융서비스	•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은행 자산 PE 인수 • 비은행 확장 (성장), 저축은행 구조조정 (하방 압력)

2026년 하반기 M&A 전략 및 실행 과제

2026년 하반기 M&A 시장은 ‘공세적 성장형(SI 주도)’, ‘방어적 구조조정형(PE 주도)’, ‘양분된 투자형(바이오·에너지)’으로 재편되며, 기업은 산업 내 포지션에 따라 ‘사는 자’와 ‘팔리는 자’로 구분되는 K-커브 양극화 환경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M&A 추진 전략



공세적 성장 추진

• 밸류체인 전반에서 기술·인프라 선점을 위한 ‘선제적 인수’ 실행

대표산업	• AI·인프라, 모빌리티, 반도체·소재
M&A 방식	• AI 밸류체인 통합형 인수, 기술 스타트업 인수, SI-FI 공동 투자
주도 주체	• SI(전략적투자자)

방어적 구조조정 실행

• 안정적 현금흐름 자산에 대한 PE의 ‘사고팔기’ 전략 및 구조조정

대표산업	• 소비자·유통, 금융서비스, 에너지·인프라(하위 자산)
M&A 방식	• 브랜드 롤업, 프랜차이즈 바이아웃, 저축은행·캐피탈 인수, 노후 인프라 매각
주도 주체	• PE(재무적투자자)

양분된 투자

• 성장 자산 → 프리미엄 인수 vs. 부진 자산 → 구조조정 인수

대표산업	•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인프라(상위 자산)
M&A 방식	• 빅파마는 신약 파이프라인(공세적), PE는 에스테틱·CDMO·재생에너지 플랫폼(안정적 투자)
주도 주체	• 같은 산업 내에서도 SI(공세적)와 PE(방어적)의 투자 성격이 완전히 분리

실행과제

- SDV·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 AI 실사(AI Due Diligence) 전면 도입
- SI-FI 공동 투자 구조 활용
- AI 반도체(팹리스)·첨단 소재 인수 검토
- 멀티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 및 글로벌 유통망·플랫폼 확보 추진
- 금융지주사(심사 면제)에 따른 저축은행 인수 기회 포착
- 해외 리테일러·플랫폼 인수 검토
- 검증된 프랜차이즈에 PE 투자-성장-엑시트 선순환 구축
- ADC·비만·CNS 분야 검증된 파이프라인 선제적 확보
- (중견 제약사) 에스테틱·뷰티·헬스케어로 생존형 사업전환 M&A 추진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PE와 협력 확대

I. 기업 성장 조건의 변화

II. 글로벌 M&A 시장 전망

III. 국내 M&A 시장 전망

IV.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V.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M&A 추진 전략
- M&A의 핵심 성공 요인
- M&A 실행안 도출 방안
- M&A 성과 관리 전략
- 사업 전환형 M&A
- 결론: 지금이 바로 '성장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Growth Transformer)'이 될 때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M&A 추진 전략

M&A는 인접시장 진입, 산업 간 확장, 역합병의 형태로 추진되며, 기업의 문제 해결과 성장,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서 CEO의 명확한 비전과 대담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M&A 추진 전략

M&A는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의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이 과정에서 CEO의 리더십 필요

CEO의 리더십



성장 정체 경쟁심화 및 시장 변화 주주/이사회 압박

단기 전략

신시장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해외시장 진출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 및 모델 재 정비

이종 산업 진입

중장기 전략 방향

시장 점유율 확대 거시 경영 환경 사전 대비 미래 성장 인프라 확보

경쟁사 인수 파괴적 기술 등장 경쟁 심화 공급망 내재화

스타트업 인수 고금리 경기 침체 신기술 및 생산능력 강화

딜로이트 분석 결과 : M&A 추진 전략 방향

1

인접 시장 거래
(Adjacent market Deals)

- 기존 산업 가치사슬 내에서의 수평적 확장과 새로운 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내 경쟁력 강화
 - (특장점) 기존 브랜드·유통망·기술 활용으로 신규 시장의 신속한 진입
 - (고려사항) 경쟁 심화 및 규제 이슈 발생 → 규제 리스크 모니터링 및 기존 브랜드 이미지 및 수요 기반 유지 전략 수립

2

산업 간 거래
(Cross-Industry Deals)

- 신사업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특장점) 신시장 진입에 따른 리스크 분산 및 혁신 역량 확보
 - (고려사항) 산업 구조·문화 차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리스크, 실패 시 투자 손실 위험 → PMI 등 사전 변화 관리 및 통합 전략 수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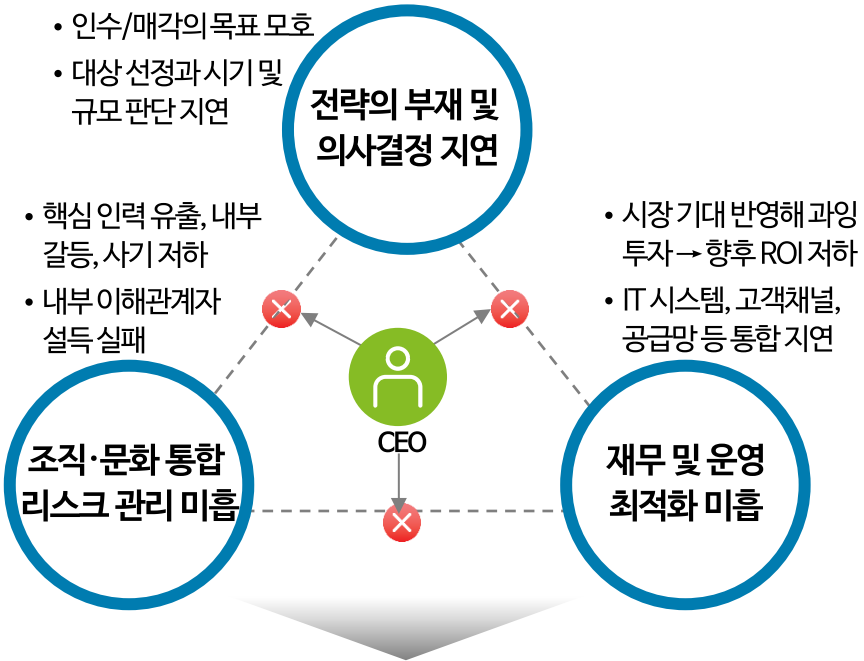
역합병
(Reverse Merger)

- 자본 시장 접근성 및 기존 주주 유동성 확보로 투자 역량 강화
 - (특장점)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IPO 대비 신속하고 저렴한 상장(우회상장) 실현
 - (고려사항) 인수대상 상장사의 부실/잠재 리스크 및 시장/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 면밀한 실사로 사전 리스크 식별 및 해소방안 마련 필요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M&A의 핵심 성공 요인

M&A를 추진할 때 CEO는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대담한 의사결정을 실행해야 하며, 효과적인 사후 통합 관리 또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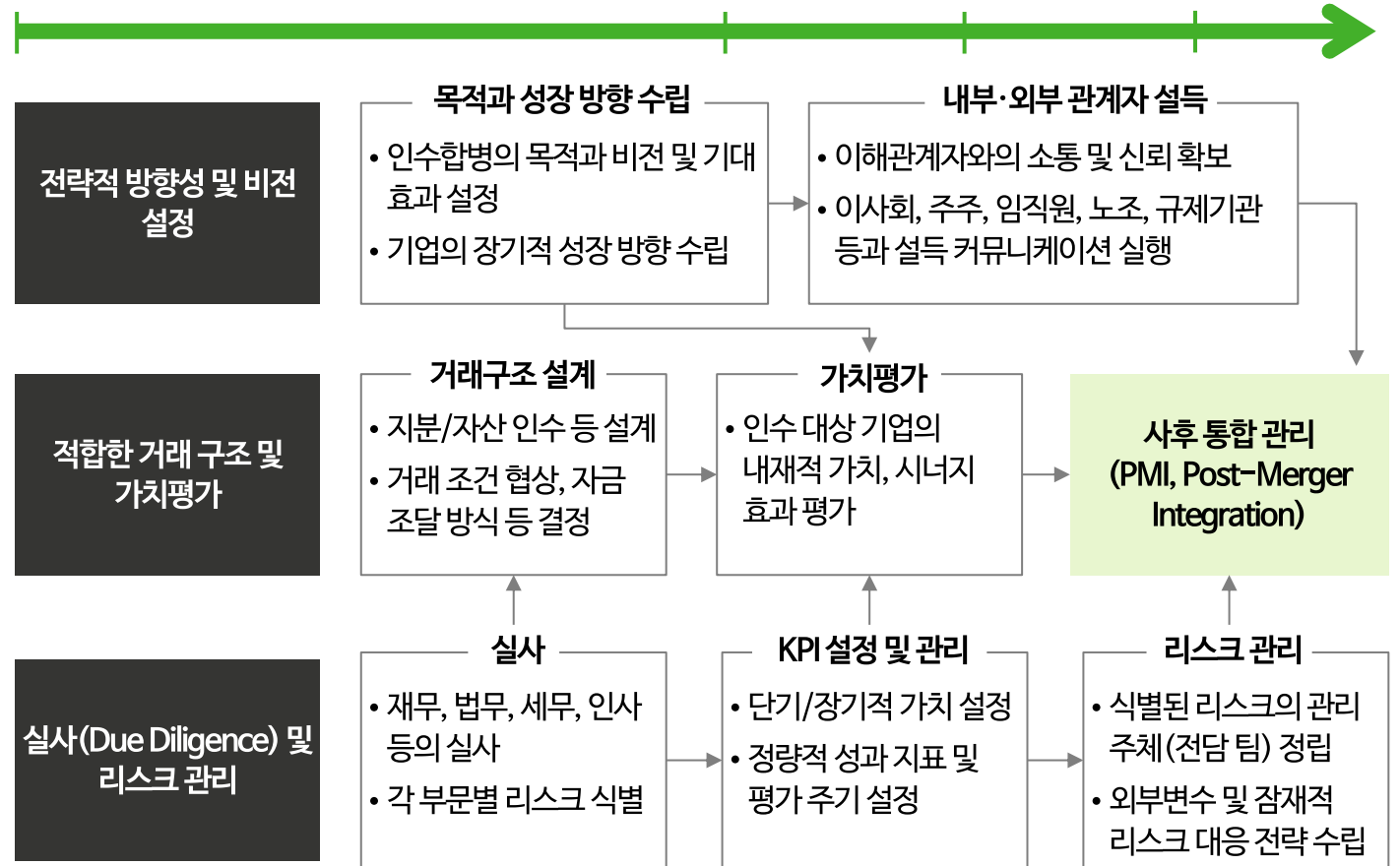
M&A 추진 시 주요 이슈



성과 실현 지연

- 전략적 미스 매치 → 본업 집중도 저하, 성장 시너지 미실현
- 통합(PMI) 실패 → 인력 이탈, 역량 중복, 문화 충돌
- 부채 기반 인수 시 재무 건전성 악화 → R&D 등 성장 투자 여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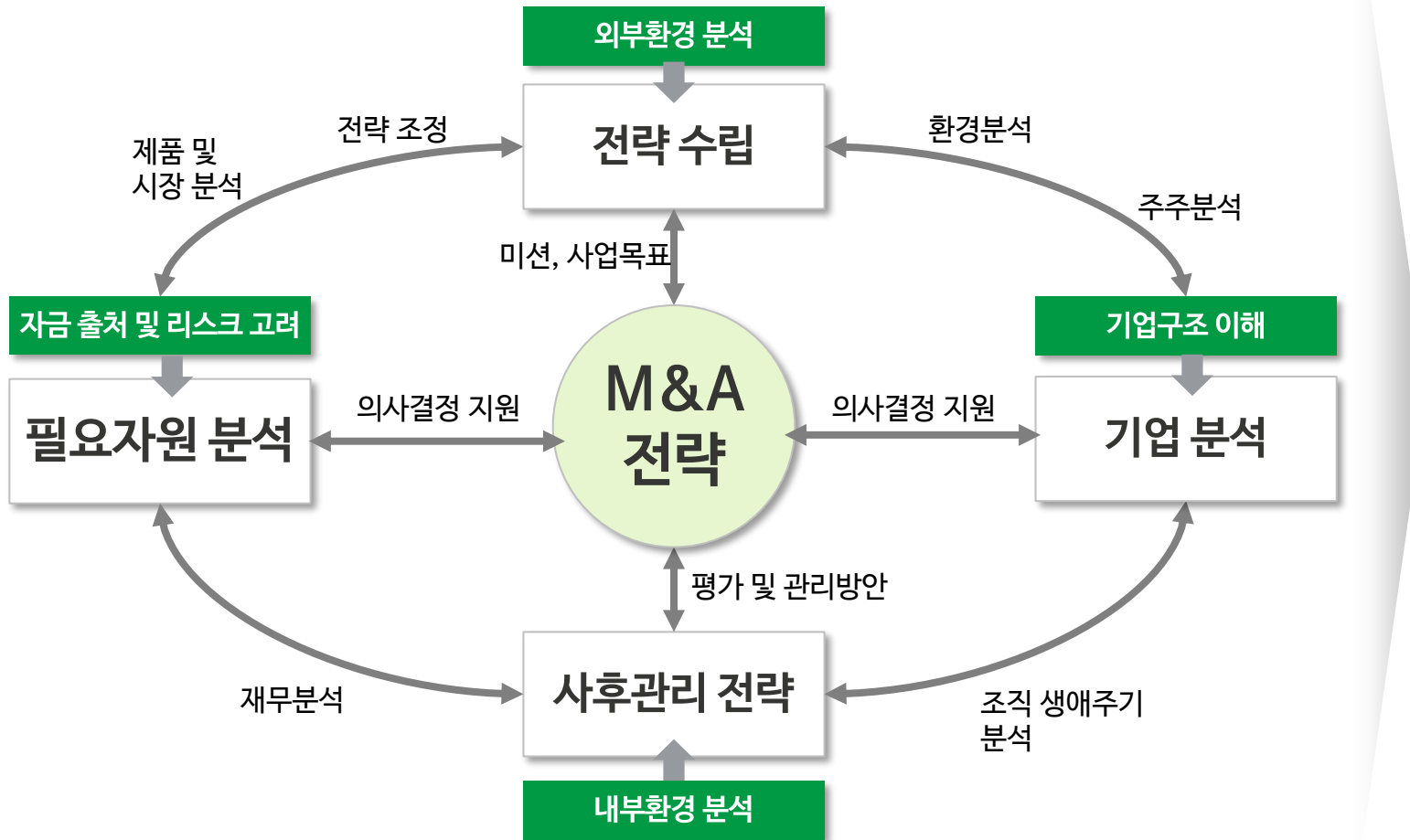
CEO 들의 리더십 과제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M&A 실행안 도출 방안

딜로이트가 보유한 M&A 역량은 기업이 효과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사 전략과 정렬된 M&A 전략수립 및 실행안 도출



M&A 전략 수립안

1. M&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요구되는 Capability 도출
2. 현재의 Core Capability vs. Required Capability 비교
3. Target Business/ Market 식별
4. Target Business/ Market의 우선순위 결정
5. M&A 관련 조직능력 평가 및 구축 (진행 / 사후 관련(PMI))
6. 인수시 예상되는 위험 요소(Risk) 및 주요 이슈 도출
7. Fund size / Deal Structure / Deal Size / 선호하는 Sector 도출

[대상기업 선정] → [실사 및 거래 실행] → [합병 후 통합관리]

후보군 선정	재무/세무 등 실사	통합관리 전략수립
대상 선정	거래구조 확정	시너지 전략수립
초기 접촉 및 타진	가치평가 및 인수대금 확정	제품/시장 전략 실행
Bidder 레터 작성	거래 협상	조직구조/인력 통합
예비 가치평가	최종 승인	기능별 통합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M&A 성과 관리 전략

M&A 대금 지급 방식과 거래 유형별 성과 관리는 단순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넘어 전략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은 산업 환경과 자금 여력, 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구조와 최적의 대금 지급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M&A 대금 지급 및 거래 유형별 성과

지급 유형	단기 성과	장기적 영향	리스크
현금	• 추가 상승 및 신속한 통합 가능성	• 현금 유동성 압박으로 성장 투자에 제약	• 자금조달 부담 (부채 증가 리스크)
주식	• 주식 희석 우려로 주가 변동성 증가	• 시너지 실현 시 지속적 가치 창출 가능	• 경영권 분산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등)
혼합형	• 유연한 자금 운영으로 거래 성사율 증가	• 목표 달성 실패 시 복합적 리스크 발생	• 현금·주식 비율 조정 과정에서 갈등/분쟁 발생

성과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현금 거래	재무건전성 확보 및 PMI를 위한 예산 편성
주식 지급	주주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장기 비전 공유 및 신뢰 구축
혼합형	명확한 계약조건 제시 및 리스크 대비 시나리오 사전 수립

거래 유형	단기 성과	장기적 영향	리스크
인접 시장	• 높은 시너지 창출로 주가 상승률이 타 유형 대비 우수	• 기존 역량 활용으로 안정적 수익성 유지 가능	• 기존 시장 경쟁 심화 및 반독점법 적용 리스크
산업간 거래	• 3년 후 평균 수익률이 인접 시장 거래 대비 높음	• 사업 다각화로 재무적 안정성 증가	• 통합 실패 및 자원 소진 위험
역합병	• 신속한 상장으로 자본조달 • 주가 변동성 증가	• 재무 투명성 확보 시 지속적 성장 가능	• 잠재적 법적·재무적 리스크 (e.g. 증권법 등)

인접 시장 거래	신속한 통합으로 단기 시너지 확보
산업간 거래	3~5년 장기 로드맵 수립 후 지속적 투자 필요
역합병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딜로이트의 M&A 실행 프레임워크 - 사업 전환형 M&A

기업은 개별 거래를 넘어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업 전환형 M&A'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환형 M&A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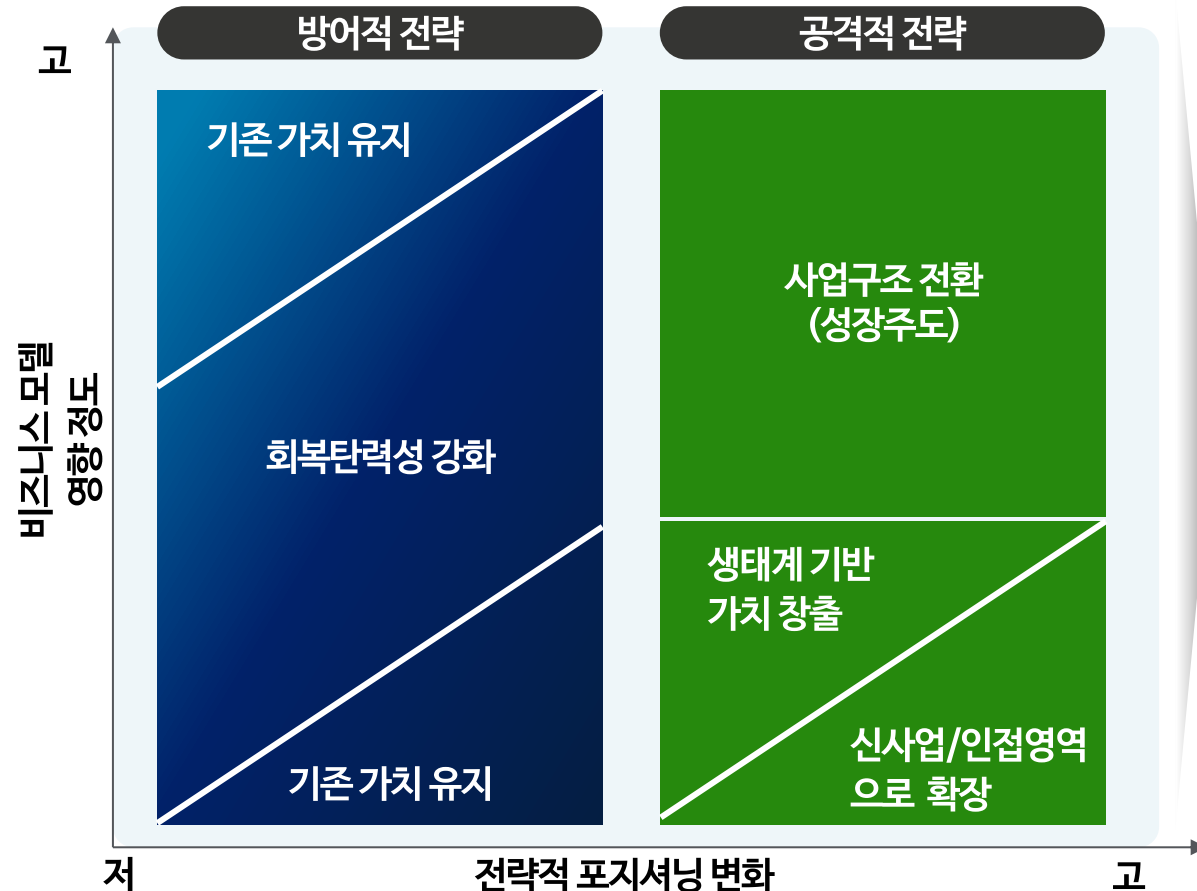
사업 전환형 M&A의 핵심 실행 원칙

1	성장 경로를 재설계 하는 리더	명확한 목적 의식과 성장 목표 제시
2	포트폴리오 가치 극대화	회복력, 성장, 가치 창출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적화
3	거래와 동시 전환 추진	변화를 실행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
4	AI 중심으로 투자 전략 정립	비용에서 기업 가치 창출 수단으로 전환
5	협업과 파트너십 구축	가치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
6	인재 확보 및 조직 문화 혁신	조직의 학습·적응 역량 내재화

결론: 지금이 바로 '성장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Growth Transformer)'이 될 때

성장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은 회복탄력성과 과감한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메가딜과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고 CEO의 비전과 결단으로 역풍을 성장 기회로 전환합니다.

딜로이트의 사업 전환 M&A 프레임워크



성장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의 5대 핵심 조건

1. '두 축 균형'의 전략적 사고 견지
 → 회복탄력성(방어적)과 과감한 확장(공세적)을 동시에 추구
2. 대·소규모 딜 병행
 → 메가딜로 규모 확보하고, 볼트온·턱인으로 지속적 포트폴리오 강화
3. 상시적 포트폴리오 재조정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 자산 재배치 및 리밸런싱
4. 일시적 역풍 극복 인식
 → 불리한 환경을 위기가 아닌 성장 기회로 재해석
5. CEO의 명확한 비전과 대담한 실행
 → 장기적 방향성 제시, 과감한 의사결정 및 조직 동원 능력 보유

참고문헌

1. Deloitte, Transformational M&A Index 2015-2024 inside The Growth Transformer's Playbook, 2025
<https://www.deloitte.com/southeast-asia/en/about/press-room/new-deloitte-report-transformational-ma-doubles-shareholder-returns.html>
2. Bloomberg, Global Index 2026 Outlook, Bloomberg Indices Report, 2025
<https://assets.bbhub.io/professional/sites/41/Outlook-2026.pdf>
3. Boomer, M&A Tally Hits \$1.3 Trillion as Unilever Joins Megadeals Parade, 20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31/m-a-tally-hits-1-3-trillion-as-unilever-joins-megadeals-parade>
4. JP Morgan, 2026 Global M&A Annual Outlook: From Disruption to Transformation, 2025
<https://www.jpmorgan.com/investment-banking/mergers-and-acquisitions-market-outlook>
5. Morgan Stanley, 2026 Global Outlook: Micro Themes Take the Spotlight, 2025
<https://www.morganstanley.com/insights/podcasts/thoughts-on-the-market/global-fixed-income-outlook-2026-micro-trends-vishy-tirupattur>
6. LSEG (London Stock Exchange Group), Global equities in 2026: Same, same... but different
https://www.lseg.com/content/dam/ftse-russell/en_us/documents/research/global-equities-in-2026-same-same-but-different.pdf
7. 연합뉴스, "이란 전쟁에도 15조원 이상 M&A '빅딜' 22건... 사상 최다", 2026.04.02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2000800072>
8. Reuters, Record megadeals in first quarter sets the pace for global M&A gains,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global-first-quarter-ma-exceeds-12-trillion-led-by-ai-2026-04-01/>
9. Investing.com, Analysis-Global first-quarter M&A exceeds \$1.2 trillion, led by AI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nalysis-global-first-quarter-ma-exceeds-12-trillion-led-by-ai-4592273>
10. Preqin, Private Equity Fundraising Statistics (2026): 50+ Data Points
<https://pipelineroad.com/blog/private-equity-fundraising-statistics>
11. The bell, M&A Overview-거래액 4년만에 최고치, 흑한기 끝났다, 2026.1.2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512301823127280101135>
12. The bell, DIG에어가스 필두 코스보다 러시, M&A 거래액 반등, 2026.3.31
<https://www.thebell.co.kr/front/newsview.asp?key=202603310609485240102386>
13. Business Post, 반도체 2027년 상반기까지 호황 이어질 것,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 2026.4.12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435514
14. Deloitte Center for Integrated Research(2024), The 'bold change' blueprint: Potential lessons from bold move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15. Deloitte Global (2025), 2025 M&A trends survey: A time to pivot for M&A markets
16. Deloitte Global (2023), 2024 Global Divestiture Survey

참고문헌 - 언론 종합(1/2)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AI·인프라

서울경제, 에너지·인프라에 뭉치던...AI가 바꾼 M&A 판도, 2026.3.29
매일경제, "AI 중심 대형딜이 올해 M&A 시장 주도", 2026.03.16
여성경제신문, 인공지능이 M&A 판 바꾼다... "거래 건수보다 '초대형 딜' 시대", 2026.3.16
[brainconnect.ai](#), "2025 국내 M&A 시장 총결산", 2026.02.02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반도체·소재

Korea Times, SK실트론 매각, SK와 두산 모두 이익, 2026.4.13
매일경제, 글렌우드PE, 1.4조원 규모 LG화학 수처리사업 인수 마무리, 2025.12.01
조선비즈, Korea's conglomerates and PEFs chase chip boom, hunt assets amid froth, 2026.1.31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pinpointnews, "범퍼·램프 매각 추진...현대모비스, AI·SDV로 체질 전환 '시동'", 2026.04.06
머니투데이, "현대차, 웨이모·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력...궤도 오른 로보택시 상용화", 2025.11.13
현대차그룹 뉴스룸, "현대차·기아, 엔비디아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2026.03.17
현대차그룹 뉴스룸, "현대차그룹,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 125.2조 원 투자", 2025.11.16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산업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26년, 4,030억원 금융지원 지원", 2026.03.27
bizwatch, "현대모비스, 로보틱스·반도체 양 날개로 신성장 박차", 2026.04.14
산업 통산부, 옴브즈만실, "정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4030억 금융지원", 2026.03.26
매일경제, "모비스 범퍼사업 매각에 프랑스기업도 참전", 2026.04.14
한국엔컴퍼니그룹, "한온시스템 최종 인수 완료", 2025.01.06
더벨, "키스톤PE, '한앤코 포트폴리오' 코아비스 품는다", 2025.10.16
전자신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추진", 2026.01.27
매일경제, "[단독] OP모빌리티·서연이화, 현대모비스 범퍼 인수전 가세", 2026.04.14
매일경제, "[GTC 2026] 엔비디아 '자율주행 기술 장벽 낮아져'", 2026.03.18
더벨, "한투PE, 자동차 부품사 '기광산업'에 350억 투자", 2025.08.28
서울경제, "한앤컴퍼니, 부품회사 코아비스 키스톤PE에 넘긴다", 2025.10.17
AEM, "현대모비스, 보스턴다이나믹스와 전략적 협력", 2026.01.08
ZDNet Korea,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내는 현대모비스", 2026.04.07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바이오·헬스케어

Deloitte, "제약·바이오·의료기술 산업 M&A 트렌드와 혁신 투자 전략", 2024.12.19
Deloitte, "2026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전망", 2026.01.26
매일경제, "IPO 시대 저물고 바이오자본 판 바뀐다", 2026.02
KOTRA, "2026년 미국 제약·바이오 산업, 딜메이킹의 재편과 자본 효율 경쟁", 2026.01.09
한국은행,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2026.02.09
메디컬타임즈, "국내 제약업계 M&A 러시", 2025.12.18
바이오스펙테이터, "유례없던 특허절벽", 2026.01.20
헬스코리아뉴스, "2026년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 AI·M&A 중심 반등", 2026.02.20
뉴스프라임,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관전 포인트", 2026.01.11
HANARO ETF, "2026년 바이오 투자 트렌드", 2026.02.04
신약조합, "2026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 2026.04.16
히트뉴스, "국내 유망주 JPMHC 집합...이 대통령 방중에 떠오른 '중국 내 생산'", 2026.01.10
한국바이오횡약협회, "2026년도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방향 및 지원계획", 2026.01.30
더벨(TheBell), "[2026 약가인하 쟁점 톺아보기] 체력 약해진 제약사 수익 감소 불가 피" (2026.01.20)
메디컬타임즈(MedicalTimes), "국내 약가인하·미 관세 이슈 겹친 제약바이오 '해외진출이 답'" (2026.04.16)
연합뉴스(Yonhap News), "삼성바이오 '제3바이오캠퍼스·미국 공장 토대로 초격차 경쟁력'" (2026.01.14)
헤럴드경제(Herald Economy), "IMM PE, 시지바이오로 밸류업 신화 재현한다" (2026.04.10)

참고문헌 - 언론 종합(2/2)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에너지·인프라

서울경제, "SK이노, 송유관공사 지분 매각설...뚝길래", 2026.03.01
뉴시스, "AI가 견인한 변압기 '슈퍼사이클'...LS일렉트릭, 美서 연이어 수주 잭팟", 2026.04.14
더벨, "KKR, SK이터닉스 최대주주 지분 인수...신재생 JV 구축 '박차'", 2026.03.06
서울경제, "에너지·인프라에 뭉쳤돈...AI가 바꾼 M&A 판도", 2026.03.29
서울경제, "AI 돌릴 청정 전력 선점...SK-KKR 5조 에너지 동맹", 2026.02.15
ZDNet Korea, "LS일렉트릭, 북미 데이터센터에 1700억 규모 전력 설비 공급", 2026.04.13
brainconnect.ai,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모펀드(PE) 5곳", 2026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소비재·유통

CNC News, "25년 화장품 기업 M&A 11건... 구다이글로벌, 서린컴퍼니+스킨푸드 인수", 2026.02.05
아모레퍼시픽 공식 보도자료,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 지분 추가 인수하며 자회사 편입", 2023.10.31
매일경제, "[단독] "전세계 여성들 마음 홀렸다"...한국 화장품 기업 인수합병 시장 '후끈'", 2025.02.13
뉴스토마토, "구다이글로벌, M&A 이어 IPO 속도", 2026.04.09
한경비즈니스, "아모레퍼시픽, 코스알엑스에 9300억원 투자한 이유는", 2023.11.13
MSTACC, "구다이글로벌, 한국의 로레알이 될 수 있을까? — M&A 전략에서 자금조달까지", 2025.07.15
뉴스핌, "맘스터치, 케이엘앤파트너스 지분 100% 매각 추진", 2026.02.20
이투데이, "한국피자헛, 인가 전 M&A 방식으로 영업권 매각", 2026.04.16
머니투데이, "초록마을, 인가 전 M&A 추진했지만 적절한 원매자 없어", 2026.01.17

국내 산업별 M&A 현황 및 전망 - 소비재·유통

CEO스코어데일리, "신한투자증권 2026년 조직개편", 2025.12.12
글로벌이코노믹, "[저축은행 규제 완화] 업계 상위권 매각 잇달아", 2025.11.10
뉴스토마토, "저축은행 M&A 규제 풀었지만 효과 '글썸'", 2025.11.21
더벨 프리미엄, "미국으로 가는 KB운용 ETF,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벨, "하나증권 IB2부문 매출 목표 2100억원", 2025.02.19
데일리안, "ETF 400조 시대 대형사만 웃는다...승자독식 심화", 2026.04.17
딜사이트경제TV, "[우리라이프 초읽기] 동양·ABL생명, 3년내 통합 목표", 2025.12.12
매일경제 레이더M, "센터필드 새 운용사...KB자산운용 vs 코람코", 2026.04.07
매일경제, "하나증권 IB그룹장 M&A 시장 전망", 2026.02.23
아시아경제, "[금융현미경] '웬만한 건 풀렸다'...저축은행 M&A 재개", 2025.12.08
연합뉴스, "저축은행 M&A 기준 완화", 2025.11.05
인베스트조선, "1조 애큐온캐피탈 매각, 메리츠·한화생명 2파전", 2026.04.09
인베스트조선, "KB자산운용, 美 ETF 운용사 물색 본격화", 2024.11.05
인베스트조선,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후 IPO 시동", 2026.04.15
전자신문, "KB금융, 2026년 20조원 생산적 금융 가동", 2026.03.24
전자신문, "네이버파이낸셜 IPO 띄운 두나무", 2026.04.15
중앙일보,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 완료", 2025.07.01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M&A 전문팀

딜로이트 One M&A 팀은 국내 최다 PE 업무 경험, PE 특화 서비스팀 보유를 토대로 PE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M&A 전략부터, 실사, 협상지원 등 실행은 물론 PMI, Value Creation 까지 End-to-End M&A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지원합니다.

Professionals



남상욱 파트너
OneM&A 리더 | 경영자문부문
Tel: 02 6676 1537
E-mail: sangnam@deloitte.com



이동영 파트너
경영자문부문
Tel: 02 6676 2304
E-mail: dongylee@deloitte.com



조병왕 파트너
경영자문부문
Tel: 02 6676 2258
E-mail: byjo@deloitte.com



최정훈 파트너
경영자문부문
Tel: 02 6676 2027
E-mail: jeochoi@deloitte.com








박상은 파트너
경영자문부문
Tel: 02 6138 5194
E-mail: sangeunpark@deloitte.com



김희준 파트너
경영자문부문
Tel: 02 6676 3856
E-mail: heejookim@deloitte.com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MZ세대 소비자, ESG, 경제전망 등 이슈 분석 리포트
-  CEO·CFO 분기 서베이, 자동차구매의향지수 등 경영·산업 동향 지표
-  딜로이트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  채용공고, 임직원 브이로그,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딜로이트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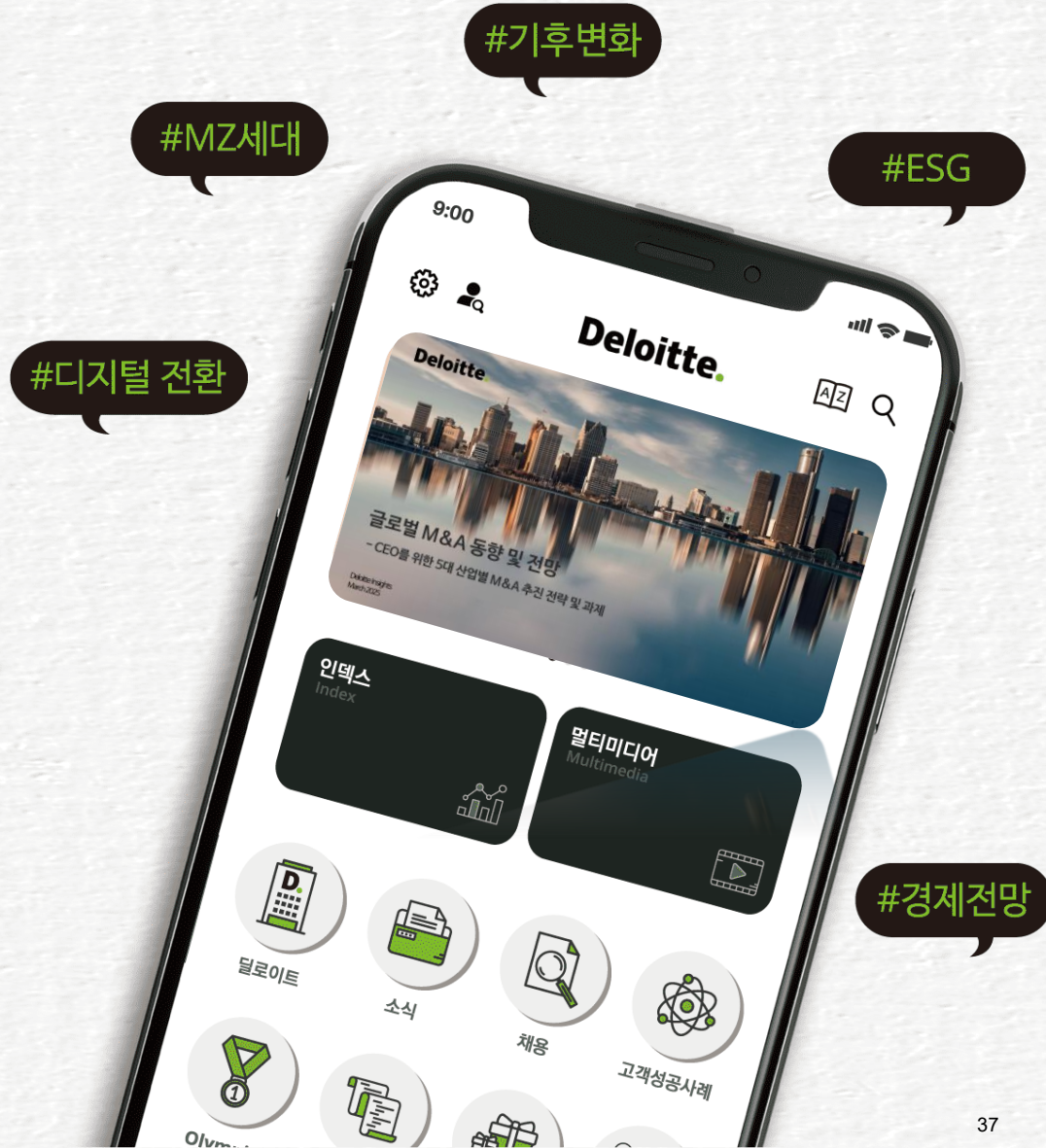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Contact us

kr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